

SISTERS OF THE REVOLUTION

Copyright © 2015 by VanderMeer Creative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2020 by Arzak Livres

Korean translation rights arranged with PM PRESS through EYA (Eric Yang Agency).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EYA(Eric Yang Agency)를 통한

PM PRESS 사와의 독점 계약으로 (주)아작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야자나무도적

세계 여성 작가 페미니즘 SF 걸작선 안네다오리판
Sisters of the Revolution: A Feminist Speculative Fiction A

반곡동도서관



IM002902

아작

조안나 러스

When It Changed

그들이 돌아온다 해도

한글서체

케이티는 미치광이처럼 운전했다. 우리가 그 꼬부랑길을 시속 120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게 분명했으니까. 그래도 케이티는 잘했다. 뛰어나게 잘했다. 나는 아내가 하루 만에 차를 완전히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걸 본 적도 있다. 나는 와일어웨이에서도 주로 농기계에 열중하는 지역에서 나서 자랐고, 터무니없는 속도로 5단 기어를 조작하느라 씨름하는 그 일을 (하라는 사람도 없었지만)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사람이었지만,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지역에 버금갈 만큼 형편없는 시골길을, 그것도 한밤중에 이렇게 급회전을 거듭하며 달리는데도 난 케이티의 운전이 무섭지 않았다.

희한한 건 그런 아내가 총기에는 손도 안 댄다는 점이었

다. 아내는 한 번에 며칠씩 48도 선 위쪽 산림지대로 하이킹을 가면서도 충기를 가져가지 않았다. 그거야말로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었다.

케이티와 나 사이엔 아이가 셋인데, 케이티의 아이가 하나, 내 아이가 둘이었다. 뒷좌석에는 내 큰아이인 유리코가 열두 살짜리 사랑과 전쟁을 꿈꾸며 잠들어 있었다. 바다로 달아나고, 북부에서 사냥하고, 기이하게 아름다운 곳들에서 기이하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는 꿈들. 열두 살이 되고 여러 호르몬선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면 누구나 떠올리곤 하는 그 경이롭고 헛된 온갖 꿈들. 유리코는 조만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몇 주 동안 사라졌다가 잔뜩 지저분해진 물골로 나타날 것이다. 생애 처음으로 퓨마를 칼로 잡았다거나 꿈을 쏘았다고 의기양양해 하며 몸서리나게 위협한 죽은 짐승을 끌고 말이다.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을지 생각하면 나로서는 절대 그 짐승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유리코는 케이티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 잠이 온다고 말했다.

세 번이나 결투를 한 사람치고 나는 너무, 너무 많은 것들에 겁을 낸다. 늑어가는 게다.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신, 서른넷이야.” 아내가 말했다. 아내는 거의 침묵에 가까울 정도로 말수가 적은, 그런 사람이다. 아내가 핵 전조등을 켰다. 3킬로미터가 남았고, 길은 갈수록 험해지기만 했다. 외진 시골이었다. 형광 초록빛 나무들이 우리 전조등 앞으로 물려들었다가 주변으로 비켜났다. 나는 문짝에 달아놓

은 짐반이로 손을 뻗어 소총을 꺼내 무릎에 놓았다. 뒷좌석에서 유리코가 몸을 뒤척였다. 키가 큰 건 날 닮았지만 눈과 얼굴은 영락없는 케이티다. 차의 엔진 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뒷좌석에서 나는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다고 케이티가 말했다. 그 전같이 들어왔을 때 차에는 유리코 혼자 있었고, 아이는 열광적으로 그 모스 부호를 해독했다(IC 엔진 가까이에 광대역 송수신기를 설치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지만, 대부분의 와일어웨이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다). 호리호리한 몸매에 화려한 옷을 걸친 내 아이가 차를 박차고 나오며 목청이 터지라 소리를 질렀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와 동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 정착지가 건설된 이래로, 이 정착지가 버림받은 이래로 머리로는 늘 이런 사태에 대비해왔지만, 이견 달랐다. 끔찍했다.

“남자다!” 유리코가 차 문을 뛰어넘으며 소리를 질렀다. “남자들이 돌아왔어! 진짜 지구 남자들!”

*

우리는 남자들이 착륙한 지점 인근의 어느 농가 주방에서 그들을 만났다. 창은 다 열려 있었고, 밤공기가 아주 부드러웠다. 우리는 주택 바깥에 세워진 여러 대의 증기 트랙터와 트럭, IC 평대 트럭, 심지어 자전거까지, 온갖 종류의 탈것들을 지나쳐 차를 세웠다. 북부인 특유의 과묵함을 깨고 용케 남자들의 혈액과 소변 샘플을 채취한 지역 생물학자 리디아가 그 결과에 놀라 머리를 흔들며 주방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아주 크고, 아주 하얗고, 아주 수줍고, 늘 안쓰러울 정도로 얼굴을 붉히는) 그녀는 심지어 스스로를 다그쳐 옛 언어 책을 찾아놓기까지 했지만, 난 잠을 자면서도 옛 언어로 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착륙지에 내가 간 것이다. 리디아는 우리를 불편해했다. 우리가 남부인들이고, 너무 현란하기 때문이었다. 난 주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었다. 스무 명 전부가 북부 대륙의 인재들이었다. 보아하니 필리스 셉은 글라이더를 타고 온 것 같았다. 유리코가 거기 있는 유일한 아이였다.

그리고 나는 그 네 명을 보았다.

그들은 우리보다 컸다. 더 크고 더 건장했다. 두 명이 나보다 키가 컸는데, 난 맨발로 켄 키가 180센티미터로 매우 큰 편이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종이었지만, 달랐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달랐다. 그리고 내 눈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의 낮선 신체 윤곽선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 중 러시아어를 하는 한 명이 (그 목소리들은 또 어땠고) 과거의 관습 중 하나로 생각되는 '악수'를 하라고 했을 때도 그들과 접촉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난 그들이 인간의 얼굴을 한 유인원들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좋은 뜻이었던 것 같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몸서리를 치며 거의 주방 끝까지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사과하듯이 웃음을 터뜨리며 마침내 훌륭한 '악수'의 사례를 ('성간 우호'의 사례라고 나는 생각했다) 보여주었다. 단단하고도 단단한 손이었다. 그들은 짐팔처럼 목직했다. 목소리는 무딘

저음이었다. 유리코가 몰래 어른들 틈에 끼어들어 입을 딱 벌린 채 '남자들'을 뚫어지고 살펴보고 있었다.

그('그'라는 단어는 지난 6백 년간 우리 언어에 없던 단어다)가 고개를 돌리고는 형편없는 러시아어로 물었다.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제 딸입니다.” 나는 대답하고 설명을 덧붙였다(우리가 가끔 광기의 순간에 보여주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는 그 불합리한 배려 때문이었다). “제 딸, 유리코 재닛슨입니다. 우리 부계 이름에 접사를 붙여서 성으로 씁니다. 당신들은 모계라고 말하겠지만.”

그가 부지불식간에 웃음을 터뜨렸다. 유리코가 소리쳤다. “난 저들이 잘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크게 실망한 눈치였다. 내가 언젠가 죽어버려야 할 필리스 헬가슨 스펙트가 방 저편에서 차갑고 노골적이고 악의에 찬 시선을 보냈다. 마치 ‘말조심해, 까닥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 거야’라고 말하듯이. 내게 공식적인 지위가 거의 없는 건 사실이지만, 대통령 본인이 계속해서 산업스파이 짓을 그저 무해한 장난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비롯해 자기 관료들과도 심각한 마찰을 빚게 될 것이다. 전쟁과 전쟁에 관한 소문들, 우리 조상들의 책 중에 있는 얘기처럼 말이다. 내가 유리코의 말을 한때 우리 공용어이기도 했던 러시아어로 옮기자 어설픈 러시아어를 말하는 그 ‘남자’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네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스스로없이 물었다.

나는 다시 말을 옮기며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 보았다. 리디아는 (여느 때처럼) 당황했고, 스페트는 뭔가 빌어먹을 음모라도 짜는 듯 눈을 가늘게 떴으며, 케이티는 아주 창백했다.

“여긴 와일어웨이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여전히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 듯이 보였다.

“와일어웨이.” 내가 다시 말했다. “기억해요? 기록이 없어요? 와일어웨이에 역병이 돌았습시다.”

그가 약간 흥미를 느끼는 듯 보였다. 방 뒤쪽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지역 직능의회 대표가 들어오는 모습이 힐끗 보였다. 아침이 되면 이 도시의 모든 마을회의와 모든 지역 간부회의가 전면 가동될 것이다.

“역병?” 그가 말했다. “그것참, 안 됐군요.”

“그렇죠.” 내가 말했다. “불행한 일이었죠. 우리는 한 세대 인구의 반을 잃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래도 와일어웨이는 운이 좋았습니다.” 내가 말했다. “우리에겐 규모가 큰 초기 유전자 풀과 첨단 기술이 있었고, 다들 고도의 지능 덕분에 선택된 데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두세 가지 영역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꽤 큰 규모의 인구가 있었으니까요. 여긴 흠이 좋습니다. 다행히 기후도 꽤 적하고요. 지금 우리 인구는 3천만 명입니다. 산업 쪽에서는 일이 눈덩이처럼 굴러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70년만 더 있으면 우리에겐 하나 이상의 진짜 도시

와 서너 곳 이상의 산업 중심지들과 전업 직군들과 전업 무선사들과 전업 기계공들이 있게 될 겁니다. 70년만 더 있으면 모두가 일생의 4분의 3을 농장에서 보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나는 예술가들이 늦은 나이가 되어서야 전업으로 기예를 연마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케이티나 나처럼 자유로이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것이, 그처럼 아주 적은 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설명하려 애썼다. 나는 또한 우리 정부를, 직능비례와 인구비례로 구성되는 양원의 개요를 설명하려 애썼다. 나는 그에게 개별 마을 단위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큰 문제들을 지역 간부회의에서 다룬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구 조절 건이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간이 더 지나면 그렇게 되겠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했다. 지금은 우리 역사에서 아주 민감한 시점이었다.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했다. 삶의 질을 희생하면서까지 미친 듯이 산업화로 돌진할 필요는 없었다. 우리는 우리 호흡에 맞는 속도로 나가야 했다.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사람들은 다 어디 있어요?”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하는 것 같은 그 남자가 다시 말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남자’를 뜻한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는 그 단어를 와일어웨이에서 지난 6백 년간 쓰지 않았던 의미로 쓰고 있었다.

“그들은 죽었어요.” 내가 말했다. “30세대 전예요.”

우리가 그의 가슴에 칼이라도 꽂은 듯 그는 헉하고 숨을 멈추며 앉아 있던 의자에서 쓰러지길라도 할 것처럼 손을 가

숨에 얹었다. 그가 경이와 감상적인 다정함이 섞인 이상야릇한 표정으로 우리를 둘러보더니 엄숙하고 진지하게 말했다.

“엄청난 비극이군요.”

난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래요.” 그가 기묘한 미소와 함께 숨을 돌리며 말했다. ‘지금 내가 숨기고 있는 걸 내놓으면 넌 기쁘고 신나서 환성을 지르겠지’라고 생각하는 어른이 아이에게 보내는 미소였다. “엄청난 비극이에요. 하지만 그건 끝났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그 이상야릇한 존경의 표정으로 우리 모두를 둘러보았다. 마치 우리가 장애인이라도 되는 듯이.

“당신들은 놀랄 만큼 잘 적응했어요.” 그가 말했다.

“뒤에 말입니까?” 내가 말했다.

그는 당황하는 것 같았다. 할 말을 잃은 듯이 보였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제가 온 곳에서는, 여성은 이처럼 검소하게 옷을 입지 않아요.”

“당신처럼 입나요?” 내가 말했다. “결혼하는 신부처럼?”

남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난 것처럼 화려한 걸 본 적이 없었다. 그가 뭔가 대답하려고 하더니 그러지 않기로 한 것 같았다. 그는 다시 나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뭔가 유치하고 이상한 사람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는 이상하게 들뜬 투로 떨리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는 말했다. “자, 우리가 왔어요.”

나는 스페트를 쳐다보았고, 스페트는 리디아를 쳐다보았으며, 리디아는 지역 마을회의 의장인 아말리아를 쳐다보았고, 아말리아는 내가 모르는 누군가를 쳐다보았다. 나는 목이 따가웠다. 이 지역 농부들이 위장에 이리듬을 바르기라도 한 것처럼 꿀꺽꿀꺽 마셔대는 이 지역 맥주는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는 지경인데도 어떻게 하다 보니 아까 아말리아한테서(우리가 바깥에서 주차하면서 본 자전거가 아말리아 것이었다) 한 잔을 받았고, 나는 그걸 모두 마셔버렸다. 보아하니 오래 걸릴 일이었다. 내가 말했다. “예, 당신들이 왔죠.” 그리고 미소를 짓고는 (바보가 된 것 같이 느끼면서) 혹시 남성 지구인의 마음이 여성 지구인의 마음과 아주 다르게 작동하는 게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을 했지만, 그럴 리가, 그랬다면 종 전체가 아주 오래전에 죽어버렸을 텐데. 지금쯤이면 이 소식이 행성 전역에 돌았을 테고, 우리에게 바르나에서 날아온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나는 그 ‘남자’가 뭔가 비밀스러운 종교집단의 사제처럼 보이는 자기 아내의 사진을 돌릴 때 이제 그만하자고 결심했다. 그가 유리코에게 질문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나는 격렬하게 항의하는 아이를 뒷방에 몰아 넣고는 앞 베란다로 나왔다. 내가 나올 때는 리디아가 (누구나 시술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단성생식과 우리가 사용하는 난자융합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었다. 케이티의 아이가 나를 닮은 것은 난자융합 기술 때문이다. 리디아의 설명은 앤스키 공법과 우리의 유일한 만능 천재이자 내 아내 케이티의 몇 대 위인지조차 알 수 없는 까마득한 할머니의 할머니인 케

이티 앤스키로 주제를 옮겨갔다.

만채 건물 중 어디선가 모스 부호 해독기가 혼자 떠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무선사들이 거리낌 없이 시시덕거리며 농담을 던지고 있었다.

현관 베란다에 한 남자가 있었다. 키 큰 두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나는 몇 분간 그를 지켜보았다. 나는 필요할 때엔 매우 조용히 움직일 수 있다. 그가 날 볼 수 있도록 기척을 내자 그는 목에 건 작은 기계에 대고 얘기하던 걸 멈췄다. 그러고는 조용히, 나무랄 데 없는 러시아어로 말했다. “지구에 성 평등이 다시 확립된 건 알고 있나요?”

“당신이 진짜로군요.” 내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그냥 바람잡이죠.” 상황이 명료하게 정리되니 대단히 안도가 되었다. 그가 상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다지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가 말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너무나 많은 유전자 손상을 입었어요. 방사능, 약물 같은 것들 때문이에요. 우리는 와일어웨이의 유전자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닛.” 낯선 사람은 낯선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법이다.

“당신들에겐 빠져 죽어도 될 만큼 넉넉한 세포들이 있잖아요.” 내가 말했다. “자체 배양하세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의 등 뒤 네모난 방충망 빛 속으로 케이티가 나타났다. 그는 낮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를 조롱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태도에는 늘 충분한 돈과 권력에

둘러싸여 2류가 되거나 변방으로 밀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 특유의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아주 이상한 느낌이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나는 그 표현이 정확하게 나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여겼을 테니까.

그가 말했다. “당신이 이곳에서 누구보다 큰 대중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닛. 단성생식 배양이 온갖 종류의 고유한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당신도 저 못지않게 잘 알 테고, 어떤 식으로든 당신들을 그런 쪽으로 이용하겠다는 (그럴 수 있다 해도 말이지요) 의도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이라는 단어는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분명 당신들도 이런 식의 사회가 부자연스럽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인류가 부자연스럽지.” 케이티가 말했다. 그녀는 왼쪽 옆구리에 내 소총을 끼고 있었다. 비단 같은 머리카락으로 덮인 머리끝이 내 쇄골 근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녀는 강철만큼 강하다. 그가 (주방에 있는 그의 동료한테서는 봤지만 그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저 존경스럽다는 듯 기묘한 미소를 띠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케이티가 마치 평생 총을 쏘았던 사람처럼 총을 들어 올렸다.

“저도 동의합니다.” 남자가 말했다. “인류는 부자연스럽지요, 과연 그렇군요. 제 치아엔 금속이 들어 있고, 여기엔 금속 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어깨를 건드렸다. “바다표범은 하렘을 만드는 동물이죠.” 그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유인원들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사람

도 그렇습니다. 비둘기는 일부일처제를 따르고, 사람도 그렇지요. 세상에는 심지어 독신주의자들과 동성애자들도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암소들도 있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일어웨이에는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가 메마른 웃음소리를 냈다. 내가 그 행동이 긴장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믿게 된 건 순전히 그의 공일 것이다.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케이트가 말했다. “생이 불멸이 아니라는 것만 빼고.”

“당신들은…?” 남자가 고갯짓으로 나와 케이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내들이지.” 케이트가 말했다. “우린 결혼한 사이야.” 또 그 메마른 웃음소리.

그가 말했다.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데 좋은 경제적 계약관계로군요. 그리고 당신들의 재생산이 그 계약관계를 따르게 되어 있다면, 유전형질을 임의 추출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형태이고요. 하지만 생각해봐요, 케이트 미카엘라슨, 당신 딸들에게 더 나은 뭔가를 줄 수는 없는지 말입니다. 전 본능을 믿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본능도요. 그리고 전 당신들 둘이, 당신은 기계공이지요, 아닌가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형태의 경찰 간부가 아닐까 추측합니다만, 당신들조차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어떤 행태로든 못 느꼈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물론이지요. 이곳에는 종의 반만 있어요. 와일어웨이에는 남자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케이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케이트 미카엘라슨, 저는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 중에서도 당신이 그 변화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케이트가 든 소총을 지나 문에서 나오는 사각형 빛 속으로 걸어갔다. 그가 내 흉터를 눈치챈 것이 그때였다고 생각한다. 관자놀이에서 턱까지 가늘게 이어진 내 흉터는 빛이 옆에서 비추지 않는 한 전혀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흉터가 있는지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건 어디서 그런 겁니까?” 그가 말했고, 나는 나도 모르게 씩 웃으며 대답했다.

“마지막 결투에서요.” 우리는 몇 초 동안 서로에게 분노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고(이상하지만 사실이다), 마침내 그가 안으로 들어가 방충망을 닫았다.

케이트가 성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바보 같으니, 우리가 모욕을 받은 것도 몰라?” 케이트가 방충망 반대편에 있는 그를 쏘버리려고 소총을 겨눴다. 난 그녀를 붙잡으며 손으로 소총을 찼다. 총알이 목표를 빗나가며 베란다 바닥에 구멍을 냈다. 케이트는 떨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이래서 내가 총에 손을 안 댔던 거야. 누군가를 죽이고 말 걸 알았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일 줄 알았어.”

집 안에서는 처음에 대화를 나눴던 남자가 여전히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지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재식민지화하고 재발견하자는 거대한 운동에 관한 얘기 같았다. 그는 와일어웨이가 얻을 이익을 강조했다. 무역, 사상의 교류, 교육. 그 역

시도 지구에 성 평등이 다시 확립되었다고 말했다.

*

당연히 케이티 말이 맞았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들을 불태워버렸어야 했다. 남자들이 와일어웨이에 오고 있다. 큰 충을 가진 문화와 아무 무기도 없는 문화가 부딪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뻔했다. 어쩌면 어떤 식으로든, 결국은 남자들이 오게 될 운명인지도 몰랐다. 난 지금으로부터 백 년 후면 우리의 고손주들이 남자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싸워서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럴 가능성조차 희박했다. 난 내가 처음으로 만난 저 황소 같은 근육을 가진 자들을, 한순간이긴 했지만 나 자신을 작다고 느끼게 만든 저 네 사람을 평생 떠올릴 터였다. 신경과민이야, 케이티는 그렇게 말했다. 난 그날 밤 일어났던 모든 일을 기억한다. 난 차 안에서 유리코가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기억하고, 우리가 집에 돌아갔을 때 가슴이 찢어질 듯 흐느끼던 케이티를 기억하고, 여느 때처럼 조금은 독단적이었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었던 그녀의 애무를 기억한다. 나는 그날 밤 집 안을 끊임없이 배회했던 걸 기억한다. 케이티가 복도에서 들어오는 불빛에 벗은 한쪽 팔을 걸쳐놓고 잠든 뒤였다. 내내 기계들을 운전하고 시험하느라 팔뚝의 근육들이 강철 같았다. 가끔 나는 케이티의 팔이 나오는 꿈을 꾸었다. 나는 아기방으로 가서 아내의 아기를 안아 들고 놀라울 정도로 감동적이고 따스한 유아의 온기를 무릎에 놓은 채 잠시 즐겼고, 마침내

주방으로 돌아가 야식거리를 챙기고 있던 유리코와 마주했던 걸 기억한다. 내 딸은 야생마처럼 먹어댔다.

“유리코.” 내가 말했다. “넌 남자와 사랑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딸은 비웃듯이 소리를 질렀다. “3미터짜리 두꺼비랑?” 재치 만점인 내 딸이 말했다.

하지만 남자들이 와일어웨이에 오고 있다. 최근에 나는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행성에 올 남자들에 대해서, 내 두 딸과 아기 베타 케이티스에 대해서 걱정하고, 케이티에게, 내게,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했다. 우리 조상들의 일기는 고통에 찬 하나의 긴 울부짖음이었다. 나는 내가 지금 기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6백 년의 세월을, 심지어 (최근에 알게 된 거긴 하지만) 고작 34년의 세월조차도 그냥 내댈져버릴 수는 없다. 가끔 나는 저 네 남자가 시골뜨기처럼 작업복을 입은 우리를, 거친 면직 바지와 수수한 셔츠를 입은 농부들인 우리 전부를 쳐다보면서 저녁 내내 변죽을 울리면서도 감히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을 생각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들 중 누가 남자 역할을 하는 거요?’라는 그 질문. 마치 우리가 자신들의 실수를 고대로 답습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듯이! 나는 지구에 성 평등이 다시 확립됐다는 말이 아주 미심쩍었다. 난 내가 조롱받았다는 생각을, 케이티가 약한 존재인 것처럼 배려를 받았다는 생각을, 유리코가 하찮거나 어리석은 존재라고 취급받았다는 생각을, 내 다른 아이들이 완전한 인간성을 가지지 못한 존재로 치부되거나 이방인으로 취급됐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성취한 것들이 정당한 평가, 또는 내가 생각하는 정당한 평가를 받는 대신 그다지 흥미로울 것도 없는 '인류'의 성과나 책 뒤표지에서 읽게 되는 특이한 일로 치부되거나, 너무나 이례적이고 별스럽지만 인상이 강하지 않아서, 또는 매력적이지만 실용적이지 않아서 가끔 웃음거리나 되는 것들로 전락할까 봐 두려웠다. 뜻밖에도 나는 이 생각이 더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 번이나 결투를 벌이고 세 명의 상대방을 모두 죽여버린 여성이 그런 공포에 사로잡히다니, 웃긴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결투라서 나는 내게 싸울 만한 배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파우스트》에 이런 말이 있다. “그대로 멈추어라, 너는 너무나 아름답구나. 변하지 말라.”

이따금 밤이 되면 나는 우리 조상들의 첫 세대가 바뀌버린 이 행성의 원래 이름을 떠올렸다. 저 신비에 쌓인 여성들에게 이 행성의 원래 이름은 남자들이 죽여버린 뒤로는 떠올리기조차 고통스러운 이름이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좀 우울한 쪽이긴 하지만, 나는 상황이 이처럼 완전히 뒤집힌 게 웃기기도 했다. 이것 역시도 지나가리라. 모든 좋은 것들은 끝이 있는 법이다.

내 목숨은 가져가더라도 내 삶의 의미는 앗아가지 말기를.
당분간은.

조안나 러스

Joanna Russ, 1937~2011

조안나 러스는 미국 작가이자 학자이며 비평가이다. 디스토피아적인 소설 《여자 사람》(1975)과 큰 영향력을 미친 논픽션 소책자인 《여성의 글쓰기를 억압하는 법》(1983)이 워낙 유명한 탓에 앤젤라 카터나 셸리 잭슨에 버금갈 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그녀의 단편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 러스는 SF와 판타지를 모두 썼고 호러나 기담에 연원을 둔 작품들도 제법 된다. 《잔지바르 고양이》(1983)와 《보통(이 아닌) 사람들》(1985), 《달의 뒷면》(1987)과 같은 단편집들이 있다. 50여 년 전 〈그들이 돌아온다 해도〉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획기적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성 정치와 사물을 인식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성별 차이에 대해 이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가진다. 이 작품은 1972년에 출간된 《다시, 위험한 상상력》에 처음 발표되었고, 1973년 네블러상을 받았다.